한국가곡 가을밤 수놓다

(재)세일음악문화재단은 지난 11월 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제5회 세일한국가곡의 밤'을 개최했다

정승일 (재)세일음악문화재단 이사장[대한설비건설협회 고문 · 세일이엔에스(주) 회장]은 지난 11월 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제5회 세일한국가곡의 밤'을 개최했다.

송상은 앵커[한국경제TV]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일한국가곡의 밤은 나영수(한양대 음대 명예교수, 前국립합창단장) 지휘, 국립합창단 합창과 더불어, 제5회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 입상자인 소프라노 곽진주, 테너 김승직이 출연해 한국가곡의 아름다움을 전했다. 또한 제4회 및 제5회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 작곡부문 입상곡인 '누군가 내 마음을 적시네'(이월하 시, 김도형 곡),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서정주 시, 김주원 곡) 등이 연주됐다.

이날 행사에서 (재)세일음악문화재단은 한국가곡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한 공로로 테너 안형일 서울대 음대 명예교수에게 '제5회 세일한국가곡상'을 수여했다. 안형일 테너는 1958년 리골레토 주역으로 데뷔해 60년 동안 한국 가곡과 오페라 발전에 공헌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악가이다.

정승일 회장은 "어느덧 세일한국가곡의 밤이 5주년을 맞이했고, 콩쿠르를 통해 입상한 젊은 성악가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며 "올해 행사는 '합창으로 듣는 한국가곡'의 콘셉으로 국립합창단의 공연과 더불어 젊은 성악가의 초연 무대를 구성했다"면서 "한국가곡을 듣고 또 함께 부르며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승일 회장은 음악예술의 발전과 한국가곡의 부흥을 위해 지난 2008년 8월 (재)세일음악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성악가 발굴과 함께 잊혀져가는 한국가곡의 부흥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세일한국가곡의 밤'을 개최하고 있다.

정승일 이사장